

국가가 국민의 경제를 보장하겠다는 샌더스식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문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결국 시장 경제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은 더는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 대신, 사회가 새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자기계발과 인적 자원의 재배치라는 순기능을 낸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보장하는 직장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 태만, 생산성 저하로 시작된 문제가 중국에는 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통해 우리모두가 잘 아는 부분이다.

도덕적 해이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람이다. 사람이기에, 우리는 외부의 동기부여나 자극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이에크 저 `노예의 길`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이 해고될 걱정 없는 보장된 직장이라면, 우리는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를 잃는다고 말한다. 버니 샌더스의 주장은 인간의 본능을 고려하지 않은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잠깐의 안정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자유도 안전도 얻을 수 없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bernie-sanders-s-idea-of-economic-rights-is-the-path-to-serfdom>